

## 5년 걸쳐 이룬 종교자유

대법원 “종교교육 강제 안돼”... 종평위·종자연 환영

사립학교 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 당했던 강익석(24)씨가 대광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월 22일 강제 배정된 학교에서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이 위법해 대광고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서울시에 책임이 묻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3심 재판부는 “대광고가 특정 종교 교리를 전파하는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강씨의 주장이 사실상 강제했다. 수차례 이의제기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행사를 반복한 것은 강씨의 기본권을 고려한 처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경·손안식)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은 23일과 22일 환영 논평을 내고 사립학교에서 강제적인 종교행위가 근절될 것을 기대했다.

2004년 기독교계인 서울 대광고를 다니던 강익석씨는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하자 학교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의 신앙적 자유가 학교의 종교교육보다 우선

하는 만큼 학교 측이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는 종교를 바탕으로 한 대안교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강익석씨는 기자회견에서 “당연한 판결을 얻는데 5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학교에서는 더 이상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며 “판결 손해배상액 1500만원은 학교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3편]

이날 자리를 함께한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이번 승소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교육평준화 정책이후 이루어졌던 반(反)교육·인권·종교적 행위들이 이제 마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씨의 교내 후원자인 前 대광고 교목 류상태 목사는 “강씨가 요구한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선택권’이었다. 학교의 기독교교육할 권리를 존중하되 학생에게는 종교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도 있으니 그것을 인정해달라는 선택권에 대한 요구였다”고 말했다.

이에 류 목사는 “이 사건은 첨부터 아주 쉽고 명쾌한 문제였다. 대법원에서는 오늘 그것을 정리해줬다. 양쪽의 권리가 다 충족되면 된다. 학

교는 종교교육 하면 된다. 학생은 강요받지 않으면 된다. 선택권만 주면 된다. 이것이 강씨가 주장한 핵심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개신교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기독교학교후원회 김영태 회장은 “미션스를 설립자에게는 학교를 세운 목적과 철학이 있는데 설립 당시 국가가 허락했으면 그 목적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강제처럼 종교교육을 거부하는 일부 학생은 배정을 다시 받아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어야지 학교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5년간 끌어온 ‘종교자유’를 둘러싼 문제가 판결됨에 따라 종립학교들은 종교교육을 시행할 경우 거부 학생들을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립학교인 광동중·고교 교법사 혜정 스님은 “청소년에게 학교가 특정종교에 대해 지나친 강요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립학교는 자신의 건학이념을 강제하고 싶어하지만 종교행위는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교법사와 교직원들의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냐는 기자 bohjung@buddhapia.com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는 사찰음식 향연

모든 법주사(주지 노현)는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적문)와 함께 4월 23일 경내에서 2010년 대충청방문의 해 불교문화 대향연 '나눔의 법(法) 사찰음식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기념하고, 전통음식문화의 현대화, 사회화에 이바지 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범종 108타 참회기도와 범고 대회도 함께 진행됐다. 사진은 불자들이 출품된 사찰음식을 시식하고 있는 모습. 박재완 기자

## 소통과 화합 이웃과 함께

부처님오신날 봉축위, 봉축행사 발표... 부산 내달 7일 점등식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봉축위) 박상희 팀장은 4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간담회를 통해 불기255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봉축행사 일정 2편]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는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봉축표어처럼 사회에 단연된 갈등과 고통을 소통과 화합하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봉축행사는 △소통과 화합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자비나눔으로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젊은 층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가는 부처님오신날로 나뉘어 주요행사 11개 부대행사 30여 개가 마련됐다.

#09일 어울림마당, 16일 연등축제

올해 봉축행사는 음력 3월 초하루인 4월 14일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이 조계종 전국 사찰에서 봉행한 저소득·소외계층 위한 108배 모금법회와 20~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불교꽃예술향연, 27일 시청앞 광장에서 점등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이어 5월 9일 장충체육관에서 어울림마당이, 15일 조계사 앞길에서 연등놀이, 16일 동국대-조계사에서 화합한마당, 연등행진, 화합한마당이, 부처님오신날에는 조계사 등 전국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한다.

올해 연등축제는 지난해 장충체육관과 동국대 운동장에서 같은 날 분리해 진행됐던 행사를 9일과 16일로 나눠 열린다.

봉축위 박상희 팀장은 “행사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에는 동국대

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동국대 운동장에 모이는 각 사찰별 대중은 350명, 연희단 50명, 율동단 20명으로 제한된다. 동국대 운동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중은 종로 등 연등행렬 코스에 부산 배치돼 곳곳에서 축제 분위기를 북돋게 된다.

봉축의 꽃인 연등 전시는 3~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6~23일 청계천, 14~23일 봉은사, 17~23일 종각·광화문에서 진행된다.

봉축행사와 함께 자비의 손길도 펼쳐진다. 봉축위는 동국대·서울대병원 등 병원법당에서 환자와 병실에 컵등을 전달한다. 조계종 포교사단 어린이팀은 4월 30일과 5월 2일 동국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건국대병원에서 어린이날을 위한 환우

잔치마당을, 조계종중앙신도회는 4월 27~30일 인사동 일대에서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달기 행사를 펼친다.

#100여 지역서도 행사 다채 부산, 대구 등 전국 100여 지역에서 다채로운 봉축행사가 열린다.

부산봉축위는 5월 7일 오후 6시 부산역광장 점등식을 시작으로 12일 오후 3시 사직운동장에서 부산 벡스코까지 장엄등 카퍼레이드를 펼친다. 14~15일 광복로에서는 문화한마당, 16일 오후 2시부터 어울림마당, 구덕운동장에서 봉축연합대법회가 봉행된다. 이어 오후 6시 30분부터 구덕운동장→대청로→부산역까지 제등행진을 한다.

대전봉축위는 15일 오후 2시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연등축제 체험마당, 점등식과 봉축법요식, 제등행진을 펼친다. 이에 앞서 4월 27일 오후 7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불교연합합창제를 개최한다. 조동섭 기자

바로잡습니다 780호(4.21일자) 1면 ‘우리는 모두 예비 장애인’ 기사중 ‘승가원(이사장 성관)’을 ‘승가원(이사장 태원)’으로 바로잡습니다.

## 조계종 교육기관 구조조정 한다

4월 30일·5월 4일... 기본교육기관·교과과정 개편안 공청회

승가 기본교육기관 교과과정 개편과 기본·전문교육기관 조정을 위한 공청회가 4월 30일과 5월 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4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청회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기조연설과 교과과정·교육기관 조정 개편안 설명, 지정·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4월 30일 오후 2시 열리는 ‘승가 기본교육기관 교과과정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는 보광 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일귀 스님(승광사승가대학장) 법진 스님(해인사승가대학장) 분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은광 스님(문헌승가대학 교수) 윤창화 대표(민족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5월 4일 오후 2시 개최될 ‘승가 기본교육기관 및 전문교육기관 조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는 성관 스님(동국대 상임이사, 원정 스님(중앙승가대 동문회장), 영조 스님(승광사 주지), 주경 스님(중앙총회 의원), 견성 스님(동학사 주지), 기본선원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조동섭 기자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교육원이 미리 의도를 갖고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의욕을 불식시키기 위해 교육기관 조정 개편(안)은 공청회 당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현재 기본교육기관 중 11곳의 정원이 미달돼 어떤 형태로든 기본교육기관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교육원 측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교육원 측은 교구본사별 기본교육기관을 광역별로 묶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승격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기자

광고는 따로  
갔습니다~

^^

▶2 법정 스님-28일 49재 ▶14 선지식-종후 스님 ▶4 인터뷰-담교 스님 ▶9 현장-승가원 내들이